

최고령 타격왕 정조준... '마지막 불꽃' 태우는 이대호

백인천·이병규 넘어 KBO 최초 만 40세 '타이틀' 도전 올해 은퇴 앞두고 타율 1위 기염... 일부 "은퇴 막아야"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예고한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가 타율 부문 1위로 올라섰다.

지난 21일 롯데와 KIA 타이거즈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맞붙었다.

이날은 이대호의 40번째 생일이었다. 이대호는 작심한 듯 배트를 휘둘렀고,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다.

이대호는 리그 타율 1위(0.353)를 탈환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호세 피델라(0.352)를 제쳤다. 최근 10경기에서 0.390의 고타율을 기록 중이며, 지난 12일 KT 위즈전에서는 연타석 홈런포를 터뜨리기도 했다.

만 40세의 나이에 타격왕에 도전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39세에 타격왕(2013년 이병규·1982년 백인천)에 오른 선수는 있지만, 40대에 타격왕에 등극한 선수는 아직 없다.

이대호는 2006년 첫 타격왕 타이틀을 따냈다. 2010년에는 전무후무한 '타격 7관왕'이라는 대기업을 달성했고, 2012년에도 타격왕에 올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

본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도 했다.

이대호는 올해 0.353(249타수 88안타)의 고타율에 8홈런 33타점 25득점의 성적을 올렸다.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소크라테스 브리토(89안타)에 이어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28개의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출루율도 0.388로 높은 편이다.

타격왕을 노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이대호를 본 일부 야구팬들은 이대호의 은퇴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친구 추신수(SSG 랜더스)와 오승환(삼성 라이온즈)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호의 은퇴가 더 아쉽다는 반응이다.

롯데의 홈구장인 사직구장에는 '이대호 은퇴 반박', '은퇴하지 마요' 등 피켓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호의 성격으로 보아 은퇴 반복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KBO는 10개 구단과 의논해 올 시즌을 마친 후 현역 은퇴를 예고한 롯데 이대호에 대해 그동안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6회 초 2사 상황에서 롯데 이대호가 안타를 치고 있다. 뉴스스

보여준 공로를 존중해 은퇴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KBO리그에서 10개 구단이 함께 은퇴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2017년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 이승엽 이후 두 번째다.

이대호가 올해 몇 개의 안타를 더 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호는 현재 2108안타를 날려 KBO리

그 역대 최다 안타 10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페이스대로라면 역대 최다안타 4위 박한이(2174안타)의 기록까지 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의 진출로 5년의 공백이 없었다면 KBO리그 대부분의 타격 지표 상위권에 이대호의 이름이 올랐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돌싱글즈3' 선공개... "여성들 미모에 압도"

ENA·MBN 공동 제작 26일 오후10시 첫 방송

새로운 돌싱남녀들이 찾아온다.

26일 오후 10시 첫 방송되는 ENA·MBN 예능물 '돌싱글즈3'가 돌싱남녀 8인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ENA와 MBN이 공동 제작하는 '돌싱글즈3'는 국내 최초로 돌싱들의 연애와 동거 생활을 그려낸 연애 시리시물이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돌싱 빌리지'에 입성한 돌싱남녀 8인이 '사랑에 빠지세요'라는 단 하나의 규칙 아래, 상대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첫 만남 이후, 돌싱 빌리지로 향하는 돌싱남녀들의 숨은 사연이 공개됐다. 먼저 돌싱남들의 차량에서는 돌싱녀들을 처음 만난 소감이 이어진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시즌1·2보다 여성분들이 더 예쁘다는 생각"이라는 한 돌싱남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돌싱남들은 미소로 공감을 보인다.

또 다른 돌싱남도 "생각보다 화려해서



'돌싱글즈3' 선공개 영상 캡처. ENA, MBN

서 압도당하는 느낌. 절로 위축이 되더라"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반면 돌싱녀들의 차 안에서는 조금 더 깊은 대화가 오간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힘들더라"는 한 돌싱녀의 말에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전 남편이 곧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짐심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한다.

'54세 치과과사' 이수진, 세 번째 결혼

치과과사 이수진(사진)이 세 번째 결혼 소식을 전했다.

지난 21일 이수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 친구야 고마워 역시.. 좋은 일 있을 때에 축하해 주는 마음이 찡찡 우정♥ 난 언제나 믿었지. 극강의 힘든 고통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수진이 원장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큰 꽃다발을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이수진은 지난 4월 MBN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두 번의 이



혼 사실을 밝힌 적 있다. 한편 이수진은 1969년 4월생, 만 53세로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V리그 컴백 '배구여제' 김연경, "팬들에게 즐거움 드리겠다"



흥국생명 김연경이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흥국생명 배구단

흥국생명과 1년 총액 7억원에 계약... "곧 팀 합류, 훈련 예정"

프로배구 V-리그로 돌아온 '배구여제' 김연경(34)이 팬들과의 만남을 고대했다.

흥국생명은 21일 김연경이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김연경은 "지난 시즌 이후 미국 전지 훈련 및 개인 훈련을 하며 많은 고민을 했고, 심사숙고 끝에 국내 팬들을 만나고자 흥국생명에서 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몸 상태는 좋다. 곧 팀에 합류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훈련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그동안 팬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

잘 준비해서 팬들에게 즐거움 드리는 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배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흥국생명은 김연경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여자부 최고 금액인 1년 총액 7억원(연봉 4억5000만원·옵션 2억5000만원)에 구단과 선수가 손을 잡았다.

1년 만의 V-리그 복귀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11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한 시즌을 치른 뒤 다시 해외행을 택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시즌을 보낸 그는 고민 끝에 국내 복귀를 택했다.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